“5·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돼야”박찬대“해병대원 특검법 전면 수용하라”  
  
  
  
  
  
  
  
 제44주년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 북구 국립 5·18 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유족 및 피해 당사자에게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전해듣고 있다. <연합뉴스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‘5·18 정신 헌법 수록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.이 대표는 18일 기념행사 종료 후 광주 민주화 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”이라며 “그러나 또 한편 아쉬운 것은 대선과 총선에서 본인이 공약한 광주 5·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점”이라고 지적했다.그는 이어 “(윤 대통령이) 오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대한민국 주권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”라며 “반드시 5·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 돼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“44년 전 국가의 명을 받고 복무하던 평범한 청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의 나쁜 명령에 의해 나쁜 선택을 해야 했다”며 “그 결과 광주와 우리 사회 그리고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”라고 말했다.이어 박 원내대표는 “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와 지휘관으로 피해가 또 발생했다”며 “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현장에 대민 지원을 나서다 급류로 목숨을 잃었다”라고 채 해병 사망사건을 언급했다.그러면서 “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”라며 “(윤석열 대통령은)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”고 촉구했다.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기념식 행사가 종료된 후 묘지를 참배하며 5·18필 해자와 유족으로부터 민주화운동 당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.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행사에 참여해 “5·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